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절에서 즐거운 설날

화엄사, 세배하고 떡국 먹고 소원연 날리기 행사

전남 구례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이 설날 아침 부처님 전에 세배하고 떡국으로 새해를 맞는다.

조계종 19교구 분사 화엄사(주지 종삼)는 오는 1월 28-29일 양일간 화엄사 경내에서 홀로사는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30여명을 초청해 '자비의 설날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주지 종삼 스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설날은 물질적 도움보다 가족같은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며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새해

를 맞고 사찰생활을 경험토록 하기위해 이번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비의 설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설날 아침 화엄사 강당 '광학당'에 모여 영화 '헬킴투 동막골'을 감상할 계획이다.

설날 아침, 떡국으로 새해를 맞이한 소년소녀 가장들은 법당에서 스님들의 지도로 기도와 함께 각자의 소원을 부처님 전에 올린다. 이어 사중의 노 스님과 대중스님을 찾아 세배하고 지역 어른들에게도 세배한다.

자비의 설날 템플스테이는 새해소원을

담은 소망연을 날리며 희망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포교국장 대요 스님은 "화엄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구로 거듭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며 "이번 행사를 마치고 사중 스님, 종무원, 신도가 함께하는 가정 '화엄사 봉사단'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새로 결성되는 화엄사 봉사단은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빨래와 청소 등 '찾아가는 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1-2회 사찰로 초청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소아암 원치 환우 축하·후원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지난 1월 17일 화순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소아암, 백혈병 원치환아'에서 일상생활에 복귀한 어린이들을 축하하고 후원금 200만원과 현물증서 500매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정원재 생명나눔 상임이사는 강경근 전남대 병원장과 함께 원치환아 35명에게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아직도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과 현물증서는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펼치는 '나눔의 집' 4호점 미르치과병원에서 후원했다.

이준엽 기자

정토마을서 자원봉사

충북 불교계 최초의 사회봉사단체인 옹화자원봉사단이 14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봉사에 참여한 단원들은 호스피스 교육 시설 설치, 야외식당과 도로 정비, 소식지 발송 작업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옹화사 충북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50여명으로 구성된 옹화자원봉사단은 작년 10월 9일 창립했다. 해철 대전총부 이사장



전남도청불자회기 마련한 신청사 개청기념 법회.

해남불교대 총동문회 소외이웃돕기 일일차집



대중사 부설 해남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동섭)는 지난 1월 13일 해남읍내 음식점에서 '소외이웃돕기 일일차집'을 개최했다(사진).

설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학 졸업 및 재학중인 동문과 지역 신행단체가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해남 불교대학과 대중사는 이날 모금한 성금 700만원을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 기념 법회

전남 불자들의 신년하례 및 도청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는 법회가 1월 16일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봉행됐다.

전남도청 불자회(회장 이개호)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은 스님(대중사 조실)과 영조(송광사), 두백(백양사), 몽산(대흥사), 종삼(화엄사) 등 조계종 전남지역 4대본사 주지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금룡,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광주불교사업연합회장 해향, 서남통합

사업연합회장 경훈 스님 등 지역 사업 스님, 박준영 전남지사, 각 신행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천은 스님은 전남도청 신청사 입주를 축하하고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 무소유와 보시정신으로 대민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축사에서 "지역발전 위해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축원하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대청불교 5주년 기념법회

충청지역의 포교매체인 월간 '대청불교'가 창립 5주년을 맞아 1월 14일 유성관 교회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만불선원 조실 진철스님, 심대평 총남지사, 엄홍철 대전시장 등 4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이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청불교'는 창립 5주년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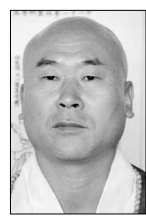
해철 대전총부 이사장

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장에 수진 스님

태고종 광주 전남 총무원은 지난 1월 12일 교구총무원에서 모임을 갖고 제 13대 총무원장으로 수진 스님(담양 옹화사 주지·사진)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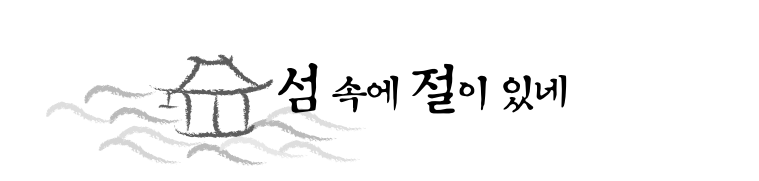
지역총회의원 14명이 참석한 이날 선거에서 신임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수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도들이 수행,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중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임 광주 전남 총무원장 수진 스님은 1948년 전북 완주에서 출생, 69년 지



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목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 보살계를 수지했다. 73년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해인사, 통도사 극락암, 서릉 백운암 등에서 정진했다. 2001년 원효종 중정 법흥 스님으로 부처 해동 올때 제 11대 올사의 맥을 이었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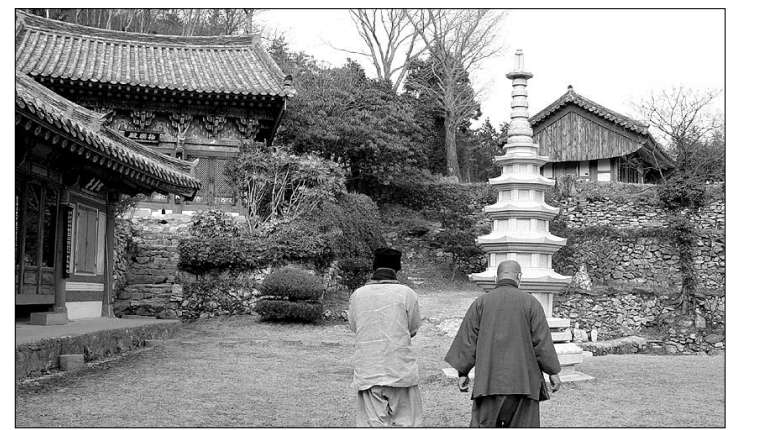


섬 속에 절이 있네

고흥 거금도 송광암

파도가 쉬면 모든 것이 비쳐 보인다. 우리네 마음도 쉬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해인삼매(海印三昧)'이다. '부처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한반도 서남 해안으로 2000여개의 섬이 자리해있다. 하나하나가 해인삼매 도량이다. 매일 한차례 해조음(海潮音)을 화두삼아 마음을 쉬려 함께 떠나보자.

'진리(眞)가 자리한(眞)' 거금도. 금(鎭)은 부처님의 별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섬이다. 본격적인 구도길은 고흥의 끝자락 북동항에서 시작된다. '저 언덕'은 생각보다 가깝다. 배에 오르려는가 했더니 땅에 닿고, 대가해있던 버스도 두어 정거장 거리에서 내려야 한다. 다시 금산 면소재지에서 적대봉 등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송광암.

'진흙소' 찾는 구도열 가득

극락전에 오르면 남해·적대봉 한눈에

산로를 따라 20분가량 산길을 오르면 (1.5km) 조계종 21교구 송광사 말사 송광암(주지 덕경)에 다다른다.

송광암의 역사는 800년 전으로 올라간다. 고려 신종 3년(1209),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사찰을 건립하기위해 화순 모후산에서 나무새 세 마리를 날렸다. 새들은 차례로 순천 송광사 국사전지리와 여수 금오도에 앉았다. 한 마리가 멀리 이곳까지 날아와 송광이 강건했다고 한다.

'깨닫기는 쉬워도 지키기 어렵다'고 했던 지눌 스님. 스님은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초발심을 지키고자 무던히 애를 썼을 터이다.

그 후 암자는 성주괴공을 거듭하며 공부기운을 쌓았다. 오늘날 송광암은 1987년 당시 주지였던 원공 스님과

입을 증명한다.

송광암 선방의 당호는 니우선원(泥牛禪院)이다. 주연에는 '바다 밑의 진흙소는 말을 물고 달아나고(海底泥牛呑月走)'로 시작하는 고봉선사의 계송이 새겨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방치고 이보다 더 나은 문패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도 '바다 밑으로 간 진흙소'를 찾고자 승·속을 초월해 수행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재가선방이 개설되어 여름, 겨울 수련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준엽 기자

▲ 송광암: (061)843-8488  
▲ 고흥: 고흥 북동항에서 거금도 금진, 신행명 배(30분간격, 20분소요) - 마을버스로 면소재지-적대봉 등산로(20분)

부산 불교 교육대학 사태의 실상에 대한 증언

병을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호가 증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20수년 전 부산불교 교육대학(당시는 부산불교 교양대학) 창립 초대학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현재는 위 대학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이나, 지난 연말까지, 심각한 분규사태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던 바, 그 분규당사자인 혜총스님(운영위원장)측과 강선태(학장)측으로부터 수습의 의뢰를 받고, 양측을 4,5회 이상 만나서 설득하고, 다음과 같은 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 분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

이 분규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고, 학교의 주도권을 학장이 갖느냐, 이사장이 갖느냐 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라 파악하고, 이 분규를 불식시키려면, 양측이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원만하고 화합된 불교교육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으로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길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측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수습을 의뢰**

그러하여 수습책을 찾기 위해서 본인에게 찾아온 강선태 학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강선태 학장 자신의 입으로, 「불교계를 위해서, 이를 수습하는 길은, 사심없이 마음을 비우고, 제 본인부터 물러날 터이니 혜총스님도 마음을 비우고 서로 좋은 뜻으로 함께 물러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보직자 및 직원들도 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참신한 새 사람들로 하여금 새판을 짜서 새로 태어나는 불교대학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강학장, 참 훌륭한 용단을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소 혜총스님과 서로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되니, 간곡히 얘기해서 혜총스님도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했고, 강학장은 이에 따른 각서 등의 문건을 본인에게 의뢰하고 떠났습니다. 이로부터 3,4일 후 혜총스님과 통화하고, 2006년 11월 25일경 혜총스님을 만나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하고, 퇴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문건을 작성해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문건을 작성하여, 먼저 강선태 학장에게 보인 결과, 「물러나는 사람이 그 이후의 수습 방안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 더 간결하게 작성해서 물러난다는 것만 확실히 명시되도록 해달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되었습니다.

3. 수습을 위한 합의각서 도출

**합의각서**

부산불교교육대학(이하 약칭)의 운영위원장 혜총스님(경호사 주지와 학교의 강선태 학장을 겸하며)은 2005년 12월 10일자로 학교의 분규를 수습하고, 보다 발전적인 학교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일체의 사비(간, 절)를 정리하고, 또 근무에도 성실하며 전문직업인임을 자각하면서, 그 정토에서 이 자서를 작성한다.

1. 강선태 학장의 유급계약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 직책을 가진 직원은 2005년 12월 10일자로 퇴진하고, 그 모든 권한은 수습위원회에 이양한다.
2. 운영위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는 2005년 12월 10일자로 해산하고 그 모든 권한은 수습위원회에 이양한다.
3. 이준태 부학장은 이 합의각서 작성된 날부터 퇴진한다.
4. 수습위원회는 본 학교 설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대 운영위원장(이에 해당되는 임의 기구)의 장로(장), 연대의 학장으로 구성한다.
5. 수습위원회는 이 합의각서 작성된 직후 2005년 12월 30일까지 새로운 운영위원 및 차기 학장과 교직원 선임을 학교의 모든 임무를 정상화시킨 후, 공식적으로 해산한다. 단, 공식해산 후, 특정한 개인적 사정으로 학교의 업무에는 연계를 할 수 없다.
6. 동문회는 학교와의 별개의 자율적인 기구이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동문회에 연계를 하지 아니하며, 동문회 또한 학교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단, 상호 협력적인 협력은 할 수 있다.)
7. 이 합의각서 작성 후, 강선태 학장은,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고, 화합의 차원에서, 혜총스님에게 불경의 언행을 한 학생들을 참회토록 한다. (이상)

2005년 12월 31일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장 이혜총,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강선태, 부산불교교육대학 중임 김용태

이상의 합의 각서를 받기 위해서 최종까지 양측에 3차례 이상 왕래하여 최종 날인토록 하고, 2005년 12월 8일 19시 혜총스님을 학교로 나오도록 하여, 그간의 입장을 학생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모두 혜총스님께 의의가 없다고, 묵묵히 있다가 본인의 주도로 다 같이 참회토록 하고,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하고 원만하게 해산했습니다.

**4. 강선태 학장 재선임은 논거리고 이윤식의 기만행위**

따라서 그 다음날 9일 12시에 강선태, 혜총스님이 학교로 나와서 수습위원회에 모든 것을 인계토록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나와서 인계하고, 서로 약속하고 헤어지고, 수습위원회 남아서(김덕명, 이준태, 달오스님, 본인) 본인의 제안으로, 「과반수 이상은 되었지만,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이 좋으니, 오늘을 제일 연장자(김덕명)를 위원장으로 뽑아놓기만 하고, 내주에 충분히 연락하여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다음 또 한 차례 모였습니다. 이 때 참석자는 김덕명, 이하우, 달오스님, 한재규, 이준태, 법산(본인) 등 6명이었습니다. 이 때, 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수습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학교나 운영위원회의 집행부만 구성해두고, 깨끗이 물러나야지, 차기, 학교나 운영위원회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 의견으로 수습위원 중의 한 사람인 한재규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뽑고, 학장 선임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 이준태와 이하우 전 학장은 학생모집의 문제, 현 학생의 지지도 등을 들어서 강학장의 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각서에 위배되는 일이며, 그 이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차기 회의는 연기시켰습니다. 다시 12월 16일 모임에 김덕명, 이하우, 달오스님, 한재규, 이준태, 본인(법산) 등 6명이 참석하여 학장문제를 거론한 결과 평소 거동도 불편하다고 참석도 않던 이하우 전 학장이 이번에도 또 나타나서, 학생모집과 관련, 강선태의 유임을 주장하고, 이준태 역시 강선태 유임을 알고 같은 이유로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기본적으로 퇴임을 전제로 사태의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의 운영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어떤 영향으로 그 집단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나 더욱 불가능하고, 학교의 책임자로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으로도 사표를 내어야 할 사람인데, 이를 다시 유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강선태 아니면 불교대학이 안된다는 논리는 더욱 강선태는 부적격이라고 본인은 역설하였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이나 논리를 다 떠나서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떠나겠다.」고 수습을 의뢰해놓고, 혜총스님은 떠나고 차기는 그 자리에 다시 앉고 앉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기만행위라고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 달오스님은 급한 진화를 받고 이석을 하였고, 본인은 이런 상식 이하의 회의에 더 참석하여는 의의 할 필요가 없다고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휴대전화로 강선태에게, 「이런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학장을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고 노기를 토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김덕명, 이하우, 한재규, 이준태 네사람이 남아서 강선태를 학장으로 유임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5. 진정한 정화가 되어 양심과 학덕 있는 사람이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법적해석을 찾기 이전에 양심상의 문제이며 특히 불교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이, 알팍한 솔책으로 우직한 본인을 기만하여 혜총스님으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퇴진토록 각서를 쓰고 두 사람이 함께 물러나고 해놓고 한 사람을 그 다음날 다시 재선임하자고 한 그 속내가 무엇인지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모사관들이 우리 불교계에 기생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이 비열한 일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부산 불교 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회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여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 하여 불교교육대학의 장래를 위해 명실상부한 정화가 있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20일